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3.(목) 이데일리, 1조원 취업 지원에도 취업률은 58%... 취지 아무리
좋다 해도

- 10명 중 4명이 이 제도로 정부 지원은 받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.
- 정부는 올해 개인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고, 추경 786 억원을 들여 청년 3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.
- 취업지원이라면 몇 명에게 돈을 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취업했고, 어떤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이동했는지를 따져야 한다.

2. 설명 내용

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함께 구직기간의 생계
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,

- 취업 지원 외에도 생계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구직자·청년 등이
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제도의 핵심 목표임
- 구직촉진수당은 제도 도입 이후 50만원으로 유지되다가 '26년 최초로
인상되었고, 인상 이후에도 1인 생계급여(820,556원)의 73.1% 수준에
불과해,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득지원 중심의 제도라고 보기는 곤란
- 또한, 구직촉진수당 인상 이후 생활이 어려운 구직자가 구직을 포기하지
않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

* [국민취업지원제도 중도탈락 비율] ('25.5) 6.7% ('26.5) 4.5%

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성과인 취업률은 '22년부터 상승세에 있으며 참여자 취업률은 약 60%에 달하고 있음

* [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] ('22) 54.4% ('23) 59.1% ('24) 59.8% ('25) 59.8%

□ 아울러,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참여자 대비 취업률·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제도의 효과는 분명함

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이 미참여자에 비해 5.7%p 높고, 청년 참여자의 취업률은 미참여 청년에 비해 13.9%p 높으며('23, 노동연)

○ 참여자의 임금 상승 순효과는 월 6만원 수준('23, 노동연)

□ 한편, 참여자에 대한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위해 심층상담 서비스와 함께 일경험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들을 적극 연계하고 있으며,

□ 청년 참여자들을 위해서는 '27년부터 K-유스개런티 (청년 첫취업지원제도, 정부안 3,793억원, 16만명 규모)를 신설,

○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진로 탐색부터 이력서 제출, 면접까지 단계별 특화지원을 강화해 취업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임

* [K-유스개런티 특화지원 주요 내용] 청년의 첫 취업이라는 목적에 따라,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된 3가지 취업지원 경로 운영

① 진로탐색	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년에 대해, 직무진단·진로상담 등을 통해 적합 직무를 찾는 등 진로 탐색을 지원
② 일경험·훈련	경력·역량개발이 필요한 청년에 대해 미래내일 일경험, K-뉴딜 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훈련받을 기회를 제공
③ 취업 연결	입사지원 등 구체적 구직활동 중인 청년은 이력서·자기소개서 컨설팅, 모의면접 등 신속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책임자	과 장	김현아 (044-202-7190)
		담당자	사무관	최원석 (044-202-7193)